

꽃과 함께한 인간의 역사... 찬란하고 놀라운 여정

꽃을 읽다

스티븐 부크먼 지음



수수께끼를 하나 낸다. 다음은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은 물론 다양한 생명체에게 많은 사람과 경탄을 받고 있는 유기체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수백만이나 매대되고, 구매자의 즐거움을 위해 서식지를 떠나며, 방탕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 바람에 자식도 없다. 그런 다음에는 고쳐 생각되는 일도 없이 내버려진다. 개중에는 더 나은 운명을 타고난 것들도 있다. 실외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활발히 번식하고, 제대로 수명을 누리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과시한다.”

위에서 기술한 유기체가 무엇인지 안다면 자연에 대한,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혹 답을 모른다면 다른 힌트 하나. “이 유기체는 매혹될 만큼 향기가 달콤해 일단 흡입해보면 결코 잊지 않는다.”

정답은 ‘꽃’이다. 누구나 한번쯤 닦을 잃은 채 꽃을 바라보던 경험이 있을 터다. 그러나 인간과 가장 친숙한 유기체이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식물 또한 꽃이다. 마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던 것처럼 ‘부른다’는 것은 최소한 그 대상을 알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바이흐로 꽃의 계절이다. 4월에 피는 벚꽃, 진달래, 튜リップ 이어 5월에는 제비꽃, 카네이션, 장미가 피어난다. 울긋불긋 흐드러지게 핀 꽃들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한다. 영문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살아 있는 광고판’인 꽃잎은 다양한 색깔과 특유의 향기로 곤충을 유혹해 번식을 도모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이앤 에커먼은 ‘감각의 자연사’에서 꽃 향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강렬한 그 향기를 들이마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욕망에 불타올라 젊음과 성적 매력을 느낀다.”

꽃의 문화와 역사를 갈무리한 책이 나왔다. 에리조나 대학의 생태학, 진화생물학 교수인 스티븐 부크먼이 펴낸 ‘꽃을 읽다’는 찬란하고 경이로운 꽃에 대한 보고서다. ‘꽃의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꽃의 역사와 생태, 쓸모 등에 초점을 맞춘다.

꽃을 보다가 아닌 ‘꽃을 읽다’로 명명한 데서 보듯 저자는 꽃이 인간의 문명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세세하게 조명한다. 과학적인 지식과 시적인 감수성을 토대로 풀어낸 꽃의 문화사와 자연사는 독특한 향기를 발한다.

저자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 유인원은 꽃

과 열매를 먹었다. 단것에 대한 기호는 이에서 비롯됐다. 흠을 파는 연장을 만들면서는 원예가 이루어졌고 정원의 개념이 생겼다.

향과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후로는 화훼가 산업화되었다.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꽃을 주고받으며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향신료로 쓰였다. 고대 이집트 사원 승려들은 값비싼 사프란 섬유질을 쓴맛이 나는 위장약으로 복용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미용을 위해 목욕물에 사프란을 넣었고, 중국 여성들은 임과 당뇨병 예방을 위해 국화와 목서꽃을 녹차 잎과 섞어 먹었다.

그 뿐 아니다. 꽃을 매개로 향수를 만들고 씨를 둘러싼 섬유질은 직물의 소재로 사용했다. 여기까지는 꽃이라는 식물이 일상과 산업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꽃의 위대함은 영감의 원천이라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 화가, 음악가, 사진가, 심지어 과학자들에게 상상력을 제공했다. 오늘날도 책, 그림, 조각,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꽃의 효능은 무궁무진하다.

인간과 꽃은 상상 이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오래 전부터 속씨식물을 재배했는데, 농작물 가운데 수백 종은 세계의 인구를 먹여 살린다. 꽃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택을 베풀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병을 치유하며 기분을 좋게 한다.

저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인간이 꽃을 보살핌으로써 먹거리를 제공받고 삶을 풍요롭게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꽃이 우리를 치유한다면 우리 또한 꽃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기타줄을 가지고 있어요”

매직 스트링

미치 앨봄 지음



트를 만나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마침내 음악의 수도나 뉴욕과 L.A, 뉴올리언스 등에

죽음을 앞둔 노교수와 그의 제자의 대화를 담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로 유명한 미치 앨봄이 신작 ‘매직 스트링’으로 돌아왔다. 이번 이야기 소재는 ‘음악’. 소설은 뉴욕타임스 10주 연속 베스트셀러, 반즈 앤 노블 1위에 오를 만큼 인기를 모았다.

주인공은 스페인 내전이 한창인 1936년 비야레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프랭키다. 살육과 테러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는 양아버지 파파와 될 없는 개와 함께 생애 최초 가족이라는 ‘3인조 밴드’에 합류한다.

프랭키는 우연히 만난 기타 스승 엘마에스트로에게 수업을 받으며 점차 최고의 실력을 지닌 기타리스트로 성장한다. 그러나 유럽을 잣터미로 만든 전쟁의 비극이 스페인까지 뻗어오르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택을 베풀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병을 치유하며 기분을 좋게 한다.

저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인간이 꽃을 보살핌으로써 먹거리를 제공받고 삶을 풍요롭게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꽃이 우리를 치유한다면 우리 또한 꽃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서 비상하게 된다. 엘비스의 대역으로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하고, 존 레논, 폴 매카트니와 파티를 즐기며 리틀리치의 히트곡에 기타 세션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소설은 기존 미치 앨봄의 장점을 간직한 데다 다류멘터리 기법까지 도입해 리얼함을 더한다. 특히 프랭키에게 멋진 인생을 선물해준 또 하나의 숨겨진 가족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반전의 묘미가 압권이다.

작가는 소설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기타줄을 가지고 있어요.”

<아르테·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시인들도... ‘밥벌이’ 위해 삶을 사는 생활인

세속 도시의 시인들

김도연 지음



적으로 구상한다. 15명의 시인들은 ‘시’에서 벗어난 다양한 정신의 태도나 외화적 포즈, 삶의 전략에서 독자적인 스타

“불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시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그게 시 자체의 힘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황인숙)

“병들고 타락한 세계.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이 문명을 시인이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문재)

항간에 ‘시인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박두진의 시 가운데 ‘시인공화국’이 있긴 하다) 그만큼 시인이 많다는 것인데, 시인의 수가 3만여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의 영토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90년대까지 문학이 가졌던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인이 서 있는 자리는 좁다.

소설가 김도연이 펴낸 ‘세속 도시의 시인들’은 우리 시대의 대표 시인 15명의 인터뷰 내용을 묶었다. 저자는 시단의 원로라 할 수 있는 김정환, 황인숙 시인부터 젊은 시인 황인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문학과 생활을 사실

일을 구축한 문인들이다. 한마디로 저자의 편애를 받는 이들로, 텍스트의 환영에 갇힌 문학주의자가 아닌 그 바깥에서 부단한 모욕과 정투를 벌이면서 삶의 서사를 써내려간 시인들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은 시인에 대해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낭만주의적 사고 방식에 갇혀 있다. 가난과 열악한 환경, 폐병을 떠올릴 만큼 시인에 대한 선입관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저자가 본 시인들은 일반의 시민처럼 ‘밥벌이’를 위해 성실한 삶을 사는 생활인이다. 저자는 “이 인터뷰집이 시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느슨하면서도 허술한 시선, 그리고 강고한 편견이 수정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로그플러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냉정하지만 따뜻하고 단순하지만 명쾌한 삶의 지혜



행복 법륜 지음

냉정하지만 따뜻하고, 단순하지만 명쾌한 법륜 스님의 삶의 지혜가 담긴 ‘행복’이 10만 부 판매를 기념으로 큰환자본으로 다시 독자를 찾아왔다. 기존 책과 내용과 판형은 같지만 연분홍 양장 커버에, 본문 그림을 뺀 대신 글씨를 키워 시력이 안 좋거나 나이 많은 독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자에게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적 갈등과 세상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은 행복에 관한 것이다.

책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방방곡곡과 세계 115개 도시의 강연장과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자에게 던진 질문과 그 답변 중 가장 많은 공감과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내용을 엄선해 엮은 행복 안내서다. <나무의마음·1만5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집을 봐주러 다시 집에 간 가출남 이야기



베개를 베다 윤성희 지음

소설집 ‘레고로 만든 집’ ‘감기’ 등을 펴낸 소설가 윤성희가 다섯번째 단편집 ‘베개를 베다’를 내놓았다. 책에는 2012~2015년 사이에 쓴 10편이 실렸다. 이호석문학상 수상작 ‘이들’은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상무남’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은 것만 같고, 등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만

같아’ 이틀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표제작 ‘베개를 베다’는 엑스트라로 살겠다며 아내와 헤어지고 집을 나온 뒤 여학연수를 떠난 아내의 부탁으로 집을 봐주러 다시 들어간 한 사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밖에 아무렇지 않게 말미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가볍게 하는 말’, 열다섯 살에 만나 이십여 년을 함께 뒀던 세 친구 ‘박장대소’의 삶의 궤적을 따라간 ‘휴가’ 등이 실렸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향양을 건행하고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